

메시지 4

새 예루살렘처럼 새롭게 됨으로써 우리의 문화를 대치하고 실지로 한 새사람이 되기 위해 부활 생명의 신선한 공급으로 날마다 새로워짐

성경: 고후 4:16, 엡 2:15, 4:22-24, 골 3:10-11

I. 에베소서 4장 22절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 옛사람을 벗어 버린 것이며”라고 말한다.

A. ‘옛사람’은 우리의 혼 안에 있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가리킨다. 옛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존재 자체이다 — 롬 6:6.

1. 옛사람과 옛사람에 포함된 모든 것은 교회생활을 손상한다. 어디든지 옛사람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소유한 것과 우리가 하는 일이 교회생활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우리가 계속해서 옛사람에 따라 산다면, 교회생활은 심각하게 손상되고 심지어 끝나 버릴 것이다. 우리가 옛사람과 함께 옛사람의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벗어 버린다면, 우리는 놀라운 교회생활 곧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인 교회생활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교회생활에서는 분열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B. ‘생활 방식’이라는 말에는 매우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다. 세계의 각 나라 안에 그리고 각 민족 가운데에는 독특한 생활 방식이 있다.

1. 지난날의 생활 방식은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벗어 버려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 방식 자체와 우리의 문화를 벗어 버려야 한다. 우리의 문화가 강할수록 우리는 다른 이들에 대해 더 비판적이 될 것이다 — 비교 엡 4:31-32, 골 3:12-14.
2. 참으로 새로워지기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문화와 관련된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벗어 버려야 한다. 새사람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 노예나 자유인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발견되는 이전의 생활 방식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3. 옛 생활 방식으로 돌아갈 때마다 우리는 내적으로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낄 것이다 — 엡 4:17-19.
4. 서로 다른 문화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교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지난날의 생활 방식으로 체현된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한다. 교회생활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여지만 있다 — 골 3:10-11.
5. 소위 교회들이 국적에 따라 형성된 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비통한 일인가!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끊어 버려야 한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지난날의 사회생활을 선호하게 되지만, 우리의 생활 방식은 반드시 본성과 방식과 실행에서 절대적으로 새로워져야 한다.

II. 에베소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말하는 새사람은 한 단체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4장 24절에서 말하는 새사람도 틀림없이 단체적이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조된 이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

A. 침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 버렸다. 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되었다. 또한 침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새사람을 입게 되었다 — 엡 4:22-24, 롬 6:6, 4.

- B. 옛사람을 벗어 버린 것과 새사람을 입는 것은 성취된 사실들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짐으로써 이 사실들을 체험하고 실재화해야 한다 — 엡 4:23.
1. 옛사람을 벗어 버리는 것은 자아에 십자가를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옛 자아를 부인하고 버리는 것이다 — 엡 4:22, 마 16:24.
 2. 새사람을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을 통해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는 것이다 (빌 1:19-21상).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새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성취하신 것을 적용하는 것이다 (엡 2:15, 4:24).
- C.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우리의 영은 반드시 우리 생각의 영이 되어야 한다(엡 4:23).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생활은 영에 의한 생활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영을 따른 일이 될 것이다. 이 영에 의해 새로워질 때 우리는 새사람을 입는다.
- D. 우리는 우리의 생각 안으로 확장되고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있는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해야 하며, 이럴 때 새사람의 매일의 행함이 생각의 영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생활의 비결이다 — 엡 4:23.
- E. 새사람은 우리의 영 안에 있다. (그 영과 연합된)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처와 새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새사람을 입는 길은 바로 우리의 영을 생각의 영이 되게 하는 것이다 — 엡 2:22, 4:23.
1. 영이 생각의 영이 되는 것은 영이 우리의 생각을 지시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며 다스리고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비교 고전 2:15-16, 고후 2:13, 10:4-5). 영이 우리의 생각을 지시할 때, 우리의 전 존재는 우리의 영의 통제 아래 있게 된다.
 2. 우리가 얼마만큼 새사람을 입느냐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존재를 얼마만큼 지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전 2:15). 우리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지시할 때 문화나 의견이나 규례를 위한 입지가 없게 된다.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영에 의해 지배받고 통제받고 통치받고 지시받기 때문에 우리의 방식을 위한 여지가 없게 된다.
 3. 연합된 영이 우리의 생각을 침투하고 적시고 소유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더욱더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한다 — 빌 2:5, 고전 2:16, 롬 12:2.
- F.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 주시는 영께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완성된 산출물인 새사람을 함께 가지고 오셨다. 이제 새사람은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을 적시고 각 부분 안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 새사람을 입는 것이며 또한 새로워지는 것이다.
- G. 우리는 헛된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생각의 영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것이 단체적인 한 새사람을 매일 사는 열쇠이며,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영의 하나로 가득한 교회생활을 갖는 비결이다 — 엡 4:3-4, 17-18, 23-24.
- H.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의 영을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은 연합된 영으로 채워진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새롭게 한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서 새로워지는 것은 인간 생활의 일들에 대한 옛 관념들이 모두 제거되고 성경의 가르침과 성령의 빛 비춤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다 — 시 119:105, 130, 담후 3:15-17, 신 17:18-20.
- I. 실지로 한 새사람을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 시대에 성취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기꺼이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지려고 할 때에만 가능하다.

III.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한 말의 중점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과 관련된다. 새사람은 우리의 영 안에서 창조되었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우리의 생각 안에서 새로워지고 있다 — 엡 2:15, 골 3:10-11.

- A. 새사람은 옛 창조물에 속한 우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새로워져야 한다.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은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이라는 구절이 가리키듯이 주로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이루어진다 — 골 3:10.
- B. 하나님에 따라 새사람이 창조된 것은 이미 완성되었지만, 우리의 체험에서 새사람은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조금씩 새로워지고 있다. 새사람을 입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따라 더욱더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존재의 표현인 그분의 형상을 더욱더 지니게 된다 — 골 3:10.
- C.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의 존재 안으로 더해져서 우리의 옛 요소를 대치하고 배출하게 하는 것이다 — 계 21:5상, 고후 5:17, 롬 12:2, 고후 4:16.
 - 1. 우리의 천연적이고 민족적인 사고방식은 우리의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교육받아 구축된 것이다. 이것은 새사람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데 가장 큰 방해가 된다.
 - 2. 한 새사람이 완전히 나타나려면, 우리는 우리의 민족과 문화에 따라 구축된 우리의 생각이 철저히 새로워지는 것을 반드시 체험해야 한다.
- D. 새로움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새로워지는 것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 1. 하나님은 영원히 새로우시며, 항상 새로운 그분의 본질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주입하시어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신다 — 롬 12:2, 골 3:10.
 - 2.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속부분들에 하나님의 속성들을 주입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의 속성들은 영원히 새롭고, 결코 낡아질 수 없으며, 영구하고, 변하지 않는다 — 계 21:5상.
 - 3. 새롭게 하시는 영은 새사람의 신성한 본질을 우리의 존재 안에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를 새 창조물, 곧 새사람이 되게 하신다 — 딤후 3:5, 고후 5:17, 갈 6:15.

IV. 우리는 새 예루살렘처럼 새롭게 됨으로써 우리의 문화를 대치하고 실지로 한 새사람이 되기 위해, 부활 생명의 신선한 공급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 고후 4:16.

- A. 새사람을 입는 것은 한 번 만에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그것은 일생의 문제,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에 걸쳐 진행되는 점진적인 과정이다.
- B. 거듭난 믿는 이들인 우리는 새사람의 일부로서, 부활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며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겨야 한다 — 롬 6:4, 7:6.
- C. 모든 믿는 이들은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함으로써(롬 6:4) 새 예루살렘이 되어 가고,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김으로써(롬 7:6)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처럼 새롭도록 새로워져야 한다.
- D.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은 매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오는 고난에 의해 우리의 걸사람이 소모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 고후 4:16.
 - 1.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우리 안에는 피난처인 우리의 영이 있다 — 시 91:1, 27:5, 31:20, 사 32:2, 딤후 4:22, 갈 6:17-18.
 - 2.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안배하시는데, 이것은 우리의 걸사람이 매일 조금씩 소모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부활 생명인,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의 신선한 공급에 의해 새로워지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 고후 4:16.
- E. 매일 새로워지기 위해 우리는 매일 아침 부흥되어야 한다 — 마 13:43, 눅 1:78-79, 잠 4:18, 삿 5:31, 고후 4:16.

- F. 우리는 네 가지 항목을 통해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그것은 십자가(고후 4:10-12, 16-18)와 우리를 신성한 생명으로 재조정하시고 개조하시고 바꾸시는 성령(딤후 3:5)과 우리의 연합된 영(엡 4:23)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엡 5:26)이다.
- G. 우리는 새로움 안에서 주님의 상에 나아와야 한다(마 26:29). 주님은 절대로 낮은 상을 받지 않으신다. 우리는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새롭게 될 필요가 있다.

V. 새사람의 새로워짐은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에 달려 있다 — 골 3:1-2, 엡 2:5-6.

- A.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활동들에 반응하고 반항하는 것이다 — 히 2:17, 4:14, 7:26, 8:1-2, 계 5:6, 골 3:1-2.
 - 1. 우리의 영 안에 계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에 의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땅에 있는 우리에게로 어떤 전달이 일어나고 있다 — 엡 1:19, 22-23, 2:22.
 - a. 우리의 영은 신성한 전달을 받아들이는 한쪽 끝이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그 신성한 전달을 전달하는 또 다른 한쪽 끝이다 — 계 5:6.
 - b.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킴으로써 하늘 안으로 높아진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의 영 안으로 전달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때 동시에 우리는 하늘에 있게 된다 — 계 4:1-2.
 - 2. 하늘에서의 사역에서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목양하고 계신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을 목양함으로써 그분과 협력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교통을 받아들인다면, 이 땅에 주님을 다시 모셔 올 큰 부흥이 있을 것이다 — 벘전 5:1-4, 비교 마 9:36, 10:1-6, 요 21:15-17, 벘전 2:25, 히 13:20.
- B.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활동으로 돌이켜서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생각을 둔다면, 새사람의 새로워짐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 히 8:1-2, 12:2, 골 3:2.
- C. 이것은 믿는 이들을 새 창조물인 새사람이 되게 하여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완성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인 새사람은 우주에서 완전히 새로운 항목, 곧 하나님의 새로운 발명품이다 — 골 3:10-11, 고후 5:17, 갈 6:15-17, 엡 2:10, 15.
- D. 하나님의 목표는 한 새사람을 얻는 것이다. 이 한 새사람은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며, 새 예루살렘은 한 새사람의 최종적인 완결일 것이다.